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18)

일중즉즉(日中則昃)

해는 중천에 이르면 기울기 시작한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금년 들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 유행병이 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이 유행병을 막으려고 사람들의 왕래를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 이미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던 세계 각국은 개미들의 왕래처럼 유통망을 통하여 물자와 사람이 왕래하고 그 때문에 풍요로운 경제상태가 유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 놓아서 세계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폐렴에 걸려 죽지 않았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려 유통망을 끊으면, 그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라가 송두리째 거덜 나고 거리에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상정해야 할 시점이다. 정말로 심각하다. 당면과제는 코로나19를 막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재앙이 바로 닥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보름 뒤면 4·15 총선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다. 후보로 나온 사람들 이라면 당연히 코로나로 죽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할 터이지만 그들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이들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했던 짓거리리는 대부분 극우 아니면 극좌였다. 옳고 그름은 없다. 네 편과 네 편이 있을 뿐이었다. 또 이들은 목숨을 걸고 패거리가 된 극성 지지자들의 목소리 속에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풍전등화 같은 이 총체적 난국을 정적(政敵)을 때려 부술 기회로 생각할지언정 코로나로 죽을 것이냐 굶어서 죽을 것이냐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의기(敬器)라고 하는 주

기(酒器)이다. 술을 담는 그릇이다. 의기는 술을 채우지 않으면 그릇은 기울어져 있지만 술이 반쯤 차 있으면 똑바로 서게 된다. 그런데 술이 주기 안을 가득하게 차도록 하면 의기는 뒤집혀서 모든 술은 다 쏟아져 버린다. 그러하니 이 주기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항상 반쯤 채워두어야 한다.

언제 왜 이런 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귀족들의 노리개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집권한 술자리에 의기가 비스듬히 걸려 있어서 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 주면 술을 더 넣으라는 표시가 되니 의기가 똑바로 설 때까지 술을 붓게 한다. 그래서 연화하는 자리에 술이 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아주 유용했을 것이다. 또 어쩌다 술에 취해 이성(理性)을 잃어서 의기에 술이 꽂차는 것도 모르고 계속하여 술을 붓다가는 한꺼번에 뒤집혀서 술을 다 쏟는 경우를 보고 박장대소했을 수도 있다.

이 의기는 이처럼 기묘하기에 쉽게 만들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돈푼이나 있고, 권력 또한 있어 야 이 의기를 가질 수 있었을 터였고, 이러한 부류들이야 생각 없이 권력과 돈에 취하여 이를 노리개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노리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스스로를 경척(警惕)하는 도구로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

전국시대를 살았던 순자(荀子)는 그의 스승 공자(孔子)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어느 날 공자가 노(魯) 환공(桓公)의 사당(祠堂)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의기(敬器)를 보았다. 공자는 사랑지기한테 이것이 무슨 그릇인지를 묻자 사랑지기가 ‘항상 옆에 두고 있는 그릇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공자는 ‘내가 듣기로는 이 그릇은 속이 비어 있으면 기울어지고, 중간쯤 채우면 똑바로 서게 되고, 가득 채우면 엎어진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실험을 해 보게 하여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왜 이 술을 담는 의기를 사당에 두었을까? 노 환공이 살아 있

을 때에 술을 좋아해서 이것을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항상 자기 옆에 두면서 혹 자신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가득차서 오만하지 않을까를 반성하는 용도(用度)로 생각하여서이다. 나아가서 후손들에게도 이 의미를 가르치려고 사당에 모셔 두었다는 설명이다. 주역(周易)의 정괘(鼎卦)에도 같은 설명이 있는데 대역수언(大易粹言)에는 ‘옛날의 군자는 신중하였으니 비면 기울고 중간쯤이면 똑바로 서고 가득하면 뒤집히는 것을 의기가 주는 경척(警惕)으로 생각했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술그릇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셈이다.

북송시대의 인종(仁宗)은 의기에 관한 기록을 보고 실물을 보고 싶어 서 궁인(宮人) 가운데 채주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를 만들게 했다. 이것을 이영각(纓英閣)에 진열해 두었다가 정도(丁度) 등 신하들이 오자 꺼내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짐(朕)이 옛날에 의기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 고서 시험적으로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이를 만들게 하여서 경(卿) 등에게 보이는 것이요.”

이어서 기울어져 있는 의기(敬器)에 물을 붓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붓는 물의 양에 따라서 의기는 기울 어졌다가 바로서고 다시 엎어졌다가 기울어졌다. 의기는 주기(酒器)이니 술자리에 내 놓을 만하지만 인종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영각에 두었으므로 노리개의 용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어서 그는 “해가 중천(中天)에 이르게 되면 기울어지고, 달은 가득 차면 이지러지니 짐은 중정(中正)으로 천하에 군림하려고 하오. 그리고 마땅히 열벽(列辟, 신하)과 더불어 이 도(道)를 함께 지키고자 하오.” 인종은 신하들에게 의기를 보여 주면서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운다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겐들 전성기가 없겠는가마는 그 전성기라는 것도 시간 앞에서는 버티지 못

하는 것을 지적인 것이다. 사람에게 시간은 극복할 수 없고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게 허락된 시간만큼이라도 실패하지 않고 살려면 의기(敬器)에서 배우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월을 허송하며 기울어진 삶을 살지 말고, 꼭 채우고자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몽땅 다 잃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말고 반쯤 채우는 중정(中正)의 도를 지키라고 부탁한 셈이다.

북송시대 역사를 읽다가 인종의 의기 이야기를 보고서 바로 요즈음 ‘정치한다는 사람’들에게 의기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어 스스로를 경척해 보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주어 본들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술판이나 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요즈음 세태를 보면 북송의 인종(仁宗)처럼 중정(中正)의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비이성적 극단적 인 사람들이 날뛰니 이들이 당선되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를 기울게 하거나 아니면 뒤엎어 놓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아무 죄 없는 우리는 도탄(塗炭)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두렵다.

이번 선거에서 머리가 텅 빈 사람,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이성적 극단주의적인 사람을 골라서 빼버릴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은 있다. 투표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투표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가 정오를 지나면 서쪽으로 기울 듯’ 되돌릴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 투표했다가는 우리가 도탄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여(輿)든 야(野)든 반드시 텅 비지 않고, 극단적인 사람은 골라내고 이성적(理性的)인 사람으로 새 국회를 채울 수 있기를 빌어본다. 그렇게 투표한다면 타협의 정치, 포용의 정치,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명량대첩의 숨은 영웅, 권전장군



권전장군 고택

병암(屏庵) 권전(權詮, 22세, 부정공파)장군은 1549년(명종 4년) 안동 서후면 금계리 마애고택에서 부친 권안세와 모친 안동김씨 사이에서 이조판서 마애(磨崖) 권예(權輿)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퇴계 이황에게 학문을 사사(師事)했다. 퇴계가 죽자 우의정을 지낸 대고모부 남봉(南峯) 정지연(鄭芝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82년 식년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역임하고 함경도 변방을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송소(松巢) 권우(權宇, 1552~1590)가 변방으로 형을 보내며 쓴 시가 “송 권중근형복수送權仲謹兄北戌” ‘권중근 형을 변방 복수에 보내며’ 라는 시이다. 중근은 권전장군의 자(字)이다.

송권중근형복수 送權仲謹兄北戌	
권중근 형을 변방 복수에 보내며	
장사경일사 壯士輕一死	
장사는 한 번 죽음을 가벼이 여기나니	
향규비소사 香園非所思	
향기로운 규방(부인)을 생각할 바 아니로다	
명년참월씨 明年斬月氏	
내년에 월지(오랑캐)를 다 참살하고 나면	
가무록양시 歌舞綠楊時	
우거진 푸른 버들 날리는 시절에 노래하고 춤추리	

권우의 시는 권전의 무인다운 기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퇴계 문하에 드나들며 공부할 정도면 권전은 문무를 겸비한 장수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권전과 권우는 나이 차이가 3살 밖에 차이가 안 나서 평소 지근거리에서 권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변방을 방위하는 장사는 죽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죽는 죽음일 뿐 죽음도 가벼이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변방으로 떠나는 권전이니 내년 이면 오랑캐를 다 참살하고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때 형과 아우는 서로 어깨동무하며 춤추고 노래하자고 말하는 듯하다.

권전은 1591년 별시무과(別試武科)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발발 초기에 안동대도호부 영병장(領兵將)에 추대된다. 그 후 영해의 위정산(葦井山, 일명 용두산) 골짜기에서 장졸 200여명을 이끌고 영덕의병장 신규년과 합세하여 왜군을 격퇴시키고자 했으나 신규진은 갑자기 들이닥친 왜군에게 분전하다 전사하고 만다. 그러나 이때 권전은 수많은 왜군을 격퇴시키고 많은 양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공을 세운다.

정유재란 발발 전에는 의병장 광재우 진영에서 잠시 활약하기도 했다. 1597년 정유재란 발발 후에는 고성현령(固城縣令)에 제수되었다가 류성룡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수군만호로 천거하자 이순신 휘하로 가서 현 남해

군인 적량만호(赤梁萬戶)로 판옥선 함장에 임명되었다. 1597년 9월 일본수군이 133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으로 침범해 서해로 진출하려 하자 권전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13척의 전선(戰船)으로 해남 울돌목 명량의 거센 조류를 이용하여 일본 병선 31척을 격퇴시키고 남서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며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대첩을 거둔다. 명량대첩 이후에 권전은 아장(亞將, 준장군)으로서 이순신 장군선(將軍船)에 올라 이순신을 보좌한다. 1598년 11월 19일에는 남해 노랑에서 적선 500여척을 맞아 장렬하게 싸우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역전동사(力戰同死)하고 만다. 향년 50세였다.

권우의 시는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이 권전을 잘 묘사했다. 그 대상만 오랑캐에서 왜놈으로 바뀌었을 뿐. 전쟁이 끝난 후 권전은 선조 38년(1605) 선무원종공신 1등(宣武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에 증직된다. 이순신 장군은 노랑해전 중에 함선 위에서 전사하여 시신이나마 거둘 수 있었으나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권전장군의 유체(遺體)는 바다에 떨어져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 권전장군은 시신이 없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다가 1606년(선조 39년) 안동의 유림들이 논의하여 안동 서쪽 청성산 서쪽 산기슭 불당골 선영에 분황고유(焚黃告由)하고 의관(貳科)으로 장례를 지냈다.

전쟁 후 권전은 고경명, 광재우, 김면, 류성룡 등과 함께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지만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 비해 그 이름과 행적은 역사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관람객 1760만 명을 돌파했던 영화 ‘명량’에는 권전장군은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장군과 함께 배를 타고 생사를 같이 하며 왜적과 전쟁을 치른 장수인데도 권전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순신장군 뿐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학계 등에서 임진왜란에 참여한 권전장군 등을 새롭게 연구하고 재조명하여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안동권문에서만이라도 권전장군의 역사적 공훈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권전장군을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편집국장 권행완>

정정기사	
지난 달 3월 1일자 종보의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17)”의 내용 중 제목을 해석하는 부분이 본문	에 배치되어 보도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3월 1일자 보도 내용	정정 후
비신지능(非臣之能)도가 높으면 마귀가 성해진다.	비신지능(非臣之能)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19는 우리에게까지 막대한 경제적 지장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19는 우리에게까지 막대한 경제적 지장을 주고 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님의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중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광고, 기고, 구독신청 안내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중회